

● 사료가격의 전망

국제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안감 감돌아.....

양계가는 현재의 모계사육수의 감소 대비책과 앞으로 난가의 폭등에 대비해서 모계를 처분하지 않고 강제 환율을 통하여 제란증산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영면에 있어서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홍 래
〈사료협회 기획부장〉

국내 사료수급사정이나 거래 가격은 매우 안정되어 대체적으로 보합 내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월중의 추세이며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뿐만 아니라 원료시세는 재고부족을 이유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국제적인 원료사정이나 국내 사료수급사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국제적 사료원료사정

미국의 1974/75 사료곡물 총생산 예상량은 210~221백만톤으로 추정되며 총 재배면적은 123.6백만 에이커(약 48백만정도)로서 전년 대비 1.3%가 많다. 따라서 1974. 7. 1 현재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것을 보면 옥수수는 77.7백만 에이커 재배면적에서 151.1~161.3백만톤을 수확예상량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전년대비 7.4%가 증가한 수량이며 수수는 21.6백만톤이 생산예상량으로서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7.8% 생산예상량은 9.2%가 각각 감소 예상이며 콩은 37.8~40.0 백만톤이 생산예상량이고 전년 대비 13.7%증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74. 3. 1 재배계획보다는 대체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소련의 74년도 곡물생산예상량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될 추세에 있다 미국농무성에서 7월 1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의

일기가 좋아서 대략 215백만톤의 곡물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수확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0백만톤이 초과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기록인 222.5백만톤 보다는 약간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의 식량 및 사료 사정은 좋은 형편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사료곡물의 다량 구매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곡물 수출국가인 알제틴은 6월중의 강우때문에 약 30%의 수수가 들에서 그대로 수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저장방법(open-air storage)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당초 생산계획인 6.7백만톤에서 5.8백만톤으로 수확예상량을 수정하였으며 2.9백만톤 수출계획에서 약 70만톤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내소비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입은 작물을 수확하는 것 보다 방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페루의 금년도 어분생산 계획량은 1.2백만톤으로서 이는 최고 절정을 이루었던 1970년도의 225만톤 약 105만톤이 적으나 1973년도의 425,000톤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물량으로서 차츰 페루의 어분사정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들어가 더욱 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소련의 해바라기의 풍작등 세계적인 단백질사료 생산량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수급이 원활하여질 것이다.

참고로 '74. 5. 30~7. 17까지의 세계곡물거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곡물가격을 소개하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5. 30일 현재의 옥수수 가격은 7월선적분이 톤당 \$105.50이 었으나 7. 16일에는 \$131.20으로 \$25.70 (약 10,000원)이 앙등되었다.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외신보도에 의하면 7. 20일에는 붓셀당340센트(톤당 \$135)까지 오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옥수수의 한국 도착가격은 FOB 프리미엄(미국내 수송비용과 선적 및 수출비용을 합제한 것) 톤당 약 \$10~12과 해상운임 톤당 \$30~31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국의 옥수수 규격 2급품을 기준한 것이므로 톤당 \$3~4을 감하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3급품에 해당하는 단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구매할 경우 다소 여기에 발표된 가격이하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대두

박가격을 소개하면 6. 20일에 톤당 \$100.50하든 대두박시세가 7. 16일에는 \$129로 폭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확시기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두박시세는 선적기간이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두박의 국내도착 예정가격은 FOB 프리미엄 톤당 \$15과 해상운임 \$35 계 \$50을 가산한 금액이 우리의 수입가격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두박공급은 부족되는 대두박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두를 수입해다가 착유한 후에 여기서 생산되는 대두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두박시세가 그대로 우리의 대두박시세가 되지 못하나 국내 대두박시세는 어디까지나 미국산 대두에서 생산되는 만치 이것이 기준이 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두박 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은 계속 남을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미국 시카고시장의 곡물거래가격 <옥수수>

선 적 시 기	5/30	6/6	6/13	6/20	6/27	7/3	7/5	7/8	7/9	7/10	7/11	7/16	7/17
74. 7 월	105.50	108.60	109.40	112.80	115.70	118.90	120	124.40	123	121	121.50	131.20	128.50
9	102	101.40	103.10	107	113.20	116.20	118	122	120.50	117.50	119	125.50	124
12	96	93.80	95.20	101.20	108.50	112.00	113	117	114.20	111.50	112.80	118	118.50
75. 3	97.70	95.80	97.40	103.20	110.50	114.00	115	119	116	113	113.60	120.20	119.60
5	—	97.10	98.90	104.40	112.10	115.00	116	119.60	116.80	113.80	114.20	120	120

자료 : 로이터 텔레프린트에서

<대두박>

선 적 시 기	5/30	6/6	6/13	6/20	6/27	7/3	7/5	7/8	7/9	7/10	7/11	7/16	7/17
74. 7	115.10	109	104.75	100.50	106.75	108	111.50	119.50	117.50	115.50	117.50	129	127
8	118	112.75	108.75	104.50	112	115	117.50	127	124.50	121	122.50	133.50	133.50
9	121	115	112	108.50	117	120	123	133	129.50	126	127.50	139	139
10	124	117.50	114	111.50	120	125	128.50	138	135	131	133.50	143.50	143.50
12	125.75	123	119	116.50	124.20	130.75	134	143.50	140	135.50	136	148	148
75. 1	128.50	124.30	122	119.00	127	134	137	146	142	139	139	152	152
3	130	127	125	122.50	130	136	140	149.50	145.50	141.50	142.50	154.50	154.50
5	—	130	128.50	126	133	140.50	431	152.00	148.50	145	144	158	158

2. 주요사료의 국내시세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요사료의 서울

지방의 도매시세를 보면 호마박, 임자박등은 전년 대비 약 20% 전월대비 약 5%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종박은 전년대비 31% 전월 대비 14%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분은 상

품이 전년대비 27%, 전월비 11% 하락되고 있고 중품은 전년대비 8% 전월대비 14% 하락되고 있어 대체적으로 단백질사료사정은 국제시세의 변동에 관계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주요원인은 생산량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으나 단백질사료 수요가 가장 높은 양계용사료 생산량이 격감된데 보다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추측된다. 대체적으로 곡류사료가격은 국내 혼합곡가격의 인상으로 오르고 있으나 도입옥수수는 9월이후까지 공급예정이므로 8,9월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강류사료시세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관수용이 아니면 조절용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지정가격으로 배급되고 있어 양축경영면에서 유리하다. 7월 이후 강류사정이 소백제분량의 증가와 도입대맥가공에서 생산되는 맥강의 유통이 원활하여졌기 때문에 민수용의 경우 탈지강은 전월대비 24%가 하락되고 있다. 이밖에 골분 패분등도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인산칼슘제는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좀더 정확한 분석치가 나오게 되면 이의 사용을 권장하게 될 것이다.

〈표 2〉 주요 사료의 도매시세 조사표

	단위/원 1kg				
	1973	1974	1974	대비 %	
	7.15	6.15	7.15	74.7.15/73.7.15	74.7.15/74.6.15
옥수수 (도입)	43.60	66.42	66.42	164.0	100.0
(국산)	55.50	71.50 (110)	71.50	119.7	100.0
대두박	115	126.50	127	110.4	100.4
입박	97.37	83.50	79	81.1	94.6
호마박	99.50	83.50 (85.50)	80	80.4	95.8
채종박	87	70	국산 60 (도입 85)	69.0	85.7
아마박	82.50	77.50		93.9	100.0
소맥피	18.20	21.30	—	192.3	—
탈지강	24.11	46.30	35	145.2	75.6
골분	52.50	70.00	73.30	139.6	104.7
패분	4.50	7.00	7.00	155.6	100.0
어분(상)	165	135	120	72.7	88.9
(중)	108.90	116.30	100	91.8	86.0

3. 배합사료 생산실적

가. 배합사료 생산실적

1974. 1~5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량을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는 전년대비 73.4%선에서 생산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생산량을 용도별로 보면 육추용사료가 73% 성계용사료가 80% 육계용사료가 40%에 불과하며 월별로 생산량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육추용사료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성계용사료는 월간 30,000~31,000톤의 범위내에서 전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대한양계협회가 발표한 산란계 초생추 분양실적(1~5월)을 참고로 검토하여 보면 1972년도 분양실적이 10,737천수 1973년도가 8,882천수 인데 비하여 1974년도가 불과 3,069천수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모계의 기초수가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바 일부 양계가는 현재의 모계사육수의 감소대책과 앞으로 난가의 폭등에 대비하여 모계를 폐계 처분하지않고 강제 환우를 통하여 계란증산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영면에 있어서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부로일러사료는 1~3월에 비하여 5월에는 200% 이상 증산되었다. 이와같은 원인은 금년도 3~4월을 전후하여 육계가격이 생산 및 출하량 감소로 폭등하였기 때문에 사육수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한편 양돈용사료는 전년대비 132.2% 낙농용사료는 52.1% 비육우사료는 818.9% 기타 농축사료는 152.4%가 각기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낙농용사료는 비교적 안정된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돈용사료가 5월에 들어와 급격히 월간 2,000톤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봄새끼가 성장함에 따라 모유에서 배합사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배합사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더욱 육성용 사료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3>

배합사료 생산 실적 (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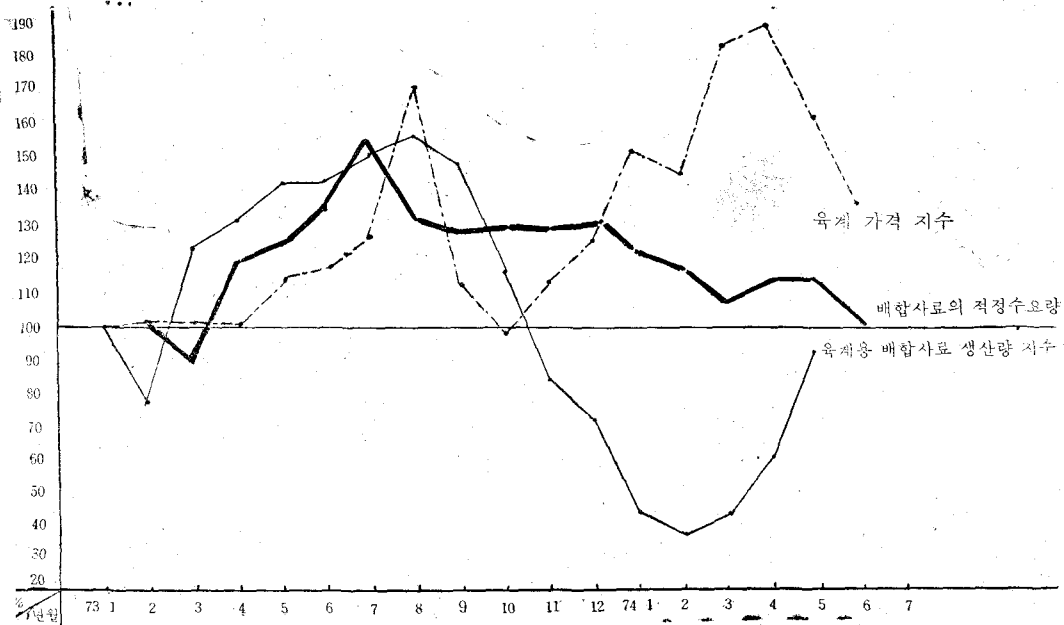
구분 월별	양 계 용				양 돈 용	낙 농 용	비육우	농 축	계
	육 추 용	성 계 용	육 계 용	소 계					
74 1	7,167	30,612	3,702	41,481	12,463	9,022	1,177	586	64,729
2	6,075	30,113	3,144	39,260	14,539	8,701	1,786	796	65,154
3	6,743	30,827	3,630	41,200	14,935	8,774	2,005	3,577	70,491
4	6,963	31,017	6,065	44,045	15,023	9,179	2,933	2,669	73,849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계	35,062	152,683	24,528	212,201	74,253	45,137	11,155	9,597	352,375
73 1~5	48,040	191,181	49,863	289,084	31,983	29,673	1214	3,802	355,756
74/73	73.0	79.9	49.2	73.4	232.2	152.1	918.9	252.4	99.0

나. 육계의 적정수요

육계용배합사료 생산량(지수)과 육계가격지수를 가지고 적정 육계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적정 수요를 찾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초생추 출하통계와 육계가격으로도 추정될 수 있겠으나 본인이 배합사료 생산량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은 축산 통계중에서 배합사료 생산통계가 가장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육계사료의 대부분이 배합사료로 사육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편의상 73. 1월의 배합사료생산량과 육계가격을 지수 100으로 하여 계산하여 보았

다. 그리고 육계용 배합사료의 적정수요량은 당월 육계가격지수와 2개월전 배합사료 생산 실적지수(2개월 사육후에 육계가 출하 되기 때문에)를 산술평균하여 구하였다 <도표 1>을 보면 1973년도의 육계의 적정수요는 7월에 154로 최고를 이루었다가 수요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8~12월이 계속 수요면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나 배합사료 생산량은 9월 이후 계속 급강하하여 1974. 1월에는 43, 2월에는 37까지 지수가떨어진 반면 육계가격지수는 4월에 190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육계의 적정수요는 계절적으로 보아 7~8월에 정점을 이루고 기타 계절에는 평행을 이루는

<도표 1> 육계가격과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기준한 육계사료의 적정수요 추정



것이 상어로 되어 있으나 적정수요에 비하여 실지 생산량이 73.10월 이후 감소되었다는 것은 에너지파동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상으로 인한 물가고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고가인 축산식품을 덜이용 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비교방법이 사실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육계사료생산량이 전년 최고수준에 비하여 금년 1~3월에는 1/3로 격감되었고 또한 이와같은 결과로 육계가격이 지나치게 일시적으로나마 폭등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참고로 소개드리는 바이다.

4. 강류사료 생산 현황

지난 2월의 소맥분 가격인상과 원맥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소맥분 수요가 격감되었으나 혼합곡 가격의 인상과 소맥분의 용도제한 완화 조치로 6월부터는 소맥의 제분량이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소맥피 생산량이 반감되었기 때문에 배합사료 원료로서의 소맥피 공급마저도 미달되었으므로 당국에서는 사료의 수급 원활을 위하여 우선 소맥피 생산량은 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여 배합사료의 확대생산을 기한바 7월말 현재 배합사료 원료용 강류사정은 매우 수급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있다.

<표 4> 소맥 제분량과 소맥피 생산현황

단위 : 톤

월별	1973		1974		소맥피 생산량 대비%
	소맥 제분량	소맥피 생산량	소맥 제분량	소맥피 생산량	
1~5	699,000	160,730	467,000	93,400	58.1
6	150,000	34,030	97,000	19,400	57.0
7	152,000	34,930	105,000	21,000	60.1
8	153,700	35,240	120,000	24,000	68.1
계	1,154,000	264,930	789,000	157,800	59.6

이밖에 정부는 74년도 미국중에 곡가조절용으로 500,000톤의 대맥을 수입가공하여 보리쌀을 방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130,000톤 이상의 맥강이 생산되므로 월평균 15,000톤이상의 맥강이 각시군 축산협동조합을 통하여 양축가에게 배정되고 있으므로 7월말 현재 강류사료 사정은 비록 소맥피가 양축가에게 직파되

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타 강류가 원활히 유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격면에 있어서도 안정되어 있다고 보겠다.

5. 사료용 옥수수 수요추정

배합사료 원료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수요추정과 공급계획을 소개드리면 <표 5>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74 하반기 (7~12월) 총수요량은 월평균 40,000톤으로서 240,000톤이 필요하게 된다. 이의 공급내역을 살펴 보면 6월말 재고량이 96,600톤이고 현재 도입 확정된 물량이 7월에 31,000톤 8월에 36,900톤이 입항예정으로서 앞으로 추가 도입할 물량은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9~12월중에 도입할 물량은 196,000톤으로 추정되나. 현재 국제적으로 옥수수가격이 폭등하여 7월중에 70,000톤 (9,10월 도착예정량)을 구매코자 하고 있으나 당분간 시세를 관망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옥수수 구매방법은 대체적으로 세가지방법이 있겠다 첫째는 70,000톤의 긴급구매, 둘째는 미국의 PL480호 구매 그리고 나머지는 태국산 옥수수 100,000톤 구매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구매를 추진하면서 향후 부족분은 KFX(정부보유의화)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다. 여하간 미국의 옥수수가격은 7,8월의 일기가 작황을 좌우하게 되므로 일기여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되며 또한 수확시기가 임박하게 되면 미국내의 옥수수 재고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예상하건대 미국에서는 옥수수 재고 격감을 상당히 문제화시켜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앙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생산량이나 각국의 공통적인 수요감퇴 내지 포함현상과 미국의 작황 진행상황등을 감안할 때 최근 1개월내에 야기되고 있는 사료곡물 가격 파동과같은 중대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시장의 가격형성을 예의 주시하여 적기를 포착하여 소요량을 유리한 가격으로 확보하여야 하겠다.

<표 5>

사료용 옥수수 수요 추정

단위 : 톤

월 별		7	8	9	10	11	12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40,000
수요	구분							
공급	전 월 이 월	105,600	96,600	93,500	93,500	83,500	109,500	105,600
	선 매 옥 수 수	31,000	36,900	—	—	—	—	67,900
	요 도 입	—	—	40,000	30,000	66,000	60,000	196,000
급	소 계	31,000	36,900	40,000	30,000	66,000	60,000	263,900
	계	136,600	133,500	133,500	123,500	149,500	169,500	369,500
익	월 이 월 량	96,600	93,500	93,500	83,500	109,500	129,500	129,500

6. 대책과 전망

이상 지적한바와 같이 국내 원료 사정은 물량면에 있어서나 가격면에서 매우 안정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6월하순 부터 크게 뛰기 시작하여 더욱 불안감이 감돈다. 기히 구매 한 옥수수는 9월이 지나면 재고가 없어지게 되므로 현재 구매계획중에 있으나 국제가격 폭등으로 즉시 구매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는 신속정확한 판단

과 결속 주의가 아쉽다. 우리는 아직도 다소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7,8월에 미국의 일기가 순조로워 작황이 호전된다면 가격하락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선 대체 품목인 타피오카(열대 서류)등 이라도 일부 수입하여 양돈 및 축우 사료에 보충 이용하고 양축가 제위에서는 자급 사료의 확보등 자급도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함으로서 사료비의 경감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

사 약 동 물 약 품

도 산 매

약 도

의정부 동창상회

의정부시 의정부동 36번지
Tel. (의정부) 2540 번
대 표 김 창 환